

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Isaiah 44:4)

2017 05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Isaiah 44:4)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5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5

2017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2 12교구	3 4교구	4 13교구	5 5교구	6 전교인
7 전교인 제4차 성찬식 어린이주일	8 전교인	9 17교구	10 6교구	11 16교구	12 8교구	13 전교인
14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일 아버지주일	15 전교인	16 15교구	17 1교구	18 18교구	19 14교구	20 전교인
21 전교인	22 전교인	23 11교구	24 9교구	25 10교구	26 2교구	27 전교인
28 전교인	29 전교인	30 7교구	31 3교구			

교회 주요 일정

- 5월 7일(주일) 제4차 성찬식 / 어린이주일
5월 14일(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 어버이주일

5월, 개인 전도 계획

.....

.....

.....

.....

.....

.....

.....

.....

.....

.....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 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목회철학에 온 성도들이 동의하고, 동역하게 하소서.
- ⑧ 중직자(장로·안수집사·권사)들이 먼저 복음으로 깨어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⑨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⑩ 믿음과 사랑으로 작정한 태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소서.

김한 드림

그리움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본문 요한복음 6:1~15 찬송가 292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때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방문객까지 더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3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그날에는 자신들의 필요와 호기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오천 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1~2절).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5절). 그러자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대답합니다(7절). 또한 안드레 역시 한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을 뿐, 현재 가진 음식으로는 큰 무리가 다 먹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9절). 이들의 대답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11절). 그러자 놀랍게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12절).

예수님은 불가능한 현실의 조건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시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목자 없는 양들을 구원할 떡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참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참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¹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²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³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⁴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⁵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⁶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⁷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⁸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⁹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

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¹⁰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¹¹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¹²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¹³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¹⁴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¹⁵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본문 요한복음 6:16~27 찬송가 436장

» 본문 해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15절).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17절).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 겨우 십여 리쯤 갔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19절).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20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재현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며 바다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새 출애굽의 구주로 오셨음을 보이십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전능하시고 크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자연의 한계까지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떡에 대한 관심, 세상 임금에 대한 관심, 표적의 크기에 대해서만 온 관심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단지 썩을 세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썩지 않을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27절). 오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내 능력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¹⁶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¹⁷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¹⁸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¹⁹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²⁰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²¹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²²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²³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²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²⁵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²⁶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²⁷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신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떡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은 것처럼(31절),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의 비유적인 의미는 '예수님께 온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이므로 영원토록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35절).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참 떡인 줄 인정하고 나아오는 자, 즉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은 하나도 내쫓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37절).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소망한 대로 마지막 날에 살리셔서 그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40절). 하지만 반대로 이 땅의 떡만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원대로 이 땅에서 그 삶이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을 주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³⁶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³⁷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³⁸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³⁹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⁴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⁴¹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⁴²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⁴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⁴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⁴⁵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⁴⁶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⁴⁷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⁴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자신들이 그 부모를 잘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며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42절). 이는 예수님이 자신과 늘 마주치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단지 현상적 실재만 볼 뿐, 지성과 교육의 한계를 넘어 영적 실재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이해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끄신 결과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결과입니다(44~45절).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기 원했던 만사가 광야의 조상들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49~51절).

오늘 하루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참 구주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⁴¹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⁴²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⁴³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⁴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⁴⁵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

게로 오느니라 ⁴⁶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⁴⁷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⁴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⁴⁹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⁵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⁵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로 믿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하셨습니다(51절).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52절).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지금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54절).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허망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56절).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 분의 심장으로 영혼을 보고, 그 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분의 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확증임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⁵²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⁵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⁵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⁵⁵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⁵⁶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⁵⁷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⁵⁸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⁵⁹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의 표적과 설명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수근거립니다(60절). 비록 제자들이 알아듣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61절).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임을 강조하시며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뜰 것을 말씀하십니다(63절).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겨우 '열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67절).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는 마음은 떠나고 몸만 남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참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팔 자였습니다(71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걸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오직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⁶³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⁶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⁶⁵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⁶⁶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⁶⁷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⁶⁸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

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⁶⁹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⁷⁰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⁷¹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⁷²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⁷³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⁷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아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1절).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초막절에 유대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2~4절). 그들은 예수님이 크게 주목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명절에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5절).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때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자신의 죽을 운명을 아셨지만 초막절은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6절). 곧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이 참된 영광의 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게 하시고, 자신은 형제들의 기대와 달리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10절). 세상이 알아주는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음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또한 세상의 때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때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¹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
 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
 려 함이라 ²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
 까운지라 ³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
 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⁵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러라 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
 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⁷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⁸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⁹ 이 말씀
 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¹⁰ 그 형
 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
 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¹¹ 명절중
 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¹²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
 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¹³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
 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명절의 중간쯤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14절).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보다 외적인 예수님의 경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놀랍게 여겼지만, 자신들처럼 공식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은 갈릴리 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15절). 그러자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가르침에 대한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습니다(16절). 이는 예수님이 자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는(요 4:34)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판단력을 잃고 외모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안식일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려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함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어기려고 하였습니다(19절). 예수님은 가르침의 옳고 그름보다 외모로 가르침을 판단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17절).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려는 교만함이 있다면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의 판단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6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8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9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20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1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3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4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5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 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27절). 예수님은 그 출신이 너무나도 분명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다들 아는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신이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보내어 오셨다는 초자연적인 출신 배경을 공개하셨습니다(29절). 곧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향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 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라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상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33절).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흩어진 헬라인에게로 가실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참 지식이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36절).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은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대로 진리를 판단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온전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²⁶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
 나 ²⁷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²⁸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
 으리라 하는지라 ²⁹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
 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
 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³⁰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³¹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
 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³²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
 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³³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
 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
 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³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³⁵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
 하리라 하시니 ³⁶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
 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³⁷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
 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자신을 생수, 곧 성령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 후에, 생수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구속사의 전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믿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은총, 곧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38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신 18:15)'로 보는 이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 갈릴리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하는 이들, 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40~44절).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알팍한 지식과 오해와 무지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진리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만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 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찾으시고 백성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레 20:10; 신 22:22~24)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시험한 것입니다(6절).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셨다면 그분의 신뢰성은 무너질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견지하셨다면 자비와 사죄의 인물이라는 그분의 명성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강요할 때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고소했던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을 받아 모두 물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11절).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너희는 죄악의 삶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였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였으며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 무자비한 자들(롬 1:29~31)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담지 않는 성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¹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²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³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⁴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⁵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⁶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⁷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⁸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⁹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¹⁰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와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¹¹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초막절 기간 성전 가운데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등을 밝혔는데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은 밤새 춤을 추면서 즐겼고, 손에 횃불을 든 채 노래하고 찬송했고 레위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악단은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을 밝히는 이 축하의 전통을 은유적으로 사용해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시며 두 번째 “나는 ~ 누구이다”라고 스스로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 1:9)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는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고 바리새인들은 반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저촉되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것이기에 언제나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 순전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이시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 기도 제목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를 알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되게 하소서.

¹²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¹³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¹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¹⁵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¹⁶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¹⁷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¹⁸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¹⁹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²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즉,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요 7:33~34).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21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 가운데 천상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26절).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말씀도 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하는 논리가 올바른 것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참되신 분이고, 자신은 그분에게 들은 그대로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모든 증언이 참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보냄을 받은 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동일함을 강조하십니다. 만일 그를 믿지 않는다면 보내신 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27절). 죄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절대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이끄는 끈질긴 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은 돌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주소서.

²¹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²²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²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²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²⁵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

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²⁶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²⁷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²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²⁹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³⁰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32절)는 선언은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노예이지만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자유인이면서도 영적으로 노예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외부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부 깊은 곳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바벨론이나 애굽, 강대국들의 노예생활을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언급 하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33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적 울타리 안에 속해 있어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살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는 아들이 주시는 선물이므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의 종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자기만족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해서 가르침에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에게서 났으니”(44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귀의 본체와 하나님의 본체는 정반대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가능합니다.

» 기도 제목

매 순간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³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³²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³³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³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³⁵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³⁶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³⁷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³⁸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³⁹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

늘 ⁴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⁴¹ 너희는 너희 아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니로다 ⁴²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⁴³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⁴⁴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와 의지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선포로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의 특성을 가졌다고 지적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종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의미는 '비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48절). 사마리아인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귀신들린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 미쳤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혼미하거나 돌아버렸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53절)며, 또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고 답하셨습니다(54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출 3:14).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입니다(요 1:1). 이 말에 극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레 24:16)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왜곡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죄입니다.

» 기도 제목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⁴⁵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⁴⁶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⁴⁷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⁴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⁴⁹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⁵⁰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⁵¹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⁵²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

라 하니 ⁵³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⁵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⁵⁵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⁵⁶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⁵⁷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⁵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⁵⁹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날 때부터 맹인 된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세상의 빛에 대한 강화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 빛의 축제인 초막절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1절)에 관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2절) 라고 묻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자세한 사연들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고 제자들도 들어서 아는 듯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맹인이 된 원인이 아니라 맹인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 목적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3절). 예수님께서서는 빛을 소유하지 못한 맹인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는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평소에 기적을 행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6~7절). 예수님께서서는 맹인의 눈에 바를 진흙을 이기기 위해 흙을 반죽했고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14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실로암 못에 씻음으로 구원과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뜬 것을 본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구걸하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에 있을 때 그는 "내가 그로라" 하고 주장하였습니다(9절).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자세히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¹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²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³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⁴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⁵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⁶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⁷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

시니(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⁸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⁹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¹⁰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¹¹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¹²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맹인의 치유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을 가장 불편하게 한 것은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치유 자체는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흙과 침을 섞고 이겨 반죽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붙였는데, 반죽을 만드는 것이 안식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속했던 것입니다(14절).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치유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만 정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16절).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맨 처음 그의 대답은 “예수라는 사람”(11절)이었는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선지자’라고 대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안식일 법도 초월해 존재하는 권위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마저도 믿지 않고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대상이 바리새인에서 유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18절). 유대인들은 나면서 맹인 된 사람이 치유된 것을 믿지 못했기에 그 사람의 부모가 아들의 증언을 반박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의 대답은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 대답을 회피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출교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종교적 형벌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동족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맹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¹³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
 리새인들에게 갔더라 ¹⁴ 예수께서 진흙을 이
 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¹⁵ 그러므
 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¹⁶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
 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¹⁷ 이에 맹인이었던 자
 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
 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하니 ¹⁸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

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¹⁹ 이는 너희 말
 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
 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²⁰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²¹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
 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
 하리이다 ²²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
 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들을 무서워함이라 ²³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보
 소서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24절)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24절) 이 말은 '너는 두말 말고 율법의 전문가인 우리가 내린 결론을 따라야 한다'라는 위협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더욱 담대하고 진솔하게 그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내게 강요하는 것처럼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25절)

사건의 당사자가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전에 물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또 던지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하니까"라고 함으로 그들 스스로 가장 모욕적이라고 여길만한 질문으로 되받아쳤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속에는 조롱의 의미도 담겨 있으나 변하지 않는 사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진심 어린 권고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해 "이상하다"라고 평하며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만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일이 없음에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 지난날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날마다 열어 주소서.

²⁴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²⁵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²⁶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²⁷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렸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²⁸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²⁹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³⁰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³¹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³²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³³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³⁴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리새인들이 내쫓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의 수가 성으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그에게 던지신 질문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였습니다(35절). 사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번에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었던 첫 번째 만남과는 달리, 눈으로 확인하며 듣는 음성은 그에게 크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39절)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심으로 심판의 기준을 제공하신 것일 뿐, 초림의 목적은 여전히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영적 맹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주장했지만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며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최악의 심판형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을 거부하는 불신 가족들이 맹인처럼 주님을 받아들이며 살게 하소서.

³⁵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³⁶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³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³⁸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³⁹ 예수께서 이

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⁴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⁴¹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양과 목자의 비유가 맹인이었던 사람과 종교지도자들의 논쟁 이후에 나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근동지방 유목민들의 삶에서 자주 볼 수 있던 모습이고, 또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어 듣는 모든 이에게 친숙한 소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절)라는 표현으로 목자와 강도를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 비유 전체를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불법으로 목자 노릇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으로 불러내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들려주신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다시 직접적인 비유를 사용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7절)이란 의미는 어떤 양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목자도 이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참 목자가 아닙니다. 절도와 강도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양 떼가 가진 것을 빼앗으며, 궁극적으로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는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과 멋있게 꾸민 모습 일지라도 그들의 속마음은 한 가지, 즉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 떼를 먹이고 살리며, 안전하게 하고 구원하려는 마음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는지라도 결국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나아갔으나, 예수님은 양 떼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 기도 제목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소서.

¹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²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³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⁵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⁶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⁷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⁹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¹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은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11, 15, 17~18).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의 살리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샅꾼입니다. 샅꾼은 돈을 받고 양을칩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기 때문에 위험이 닥쳐오면 즉시 도망갑니다. 돈을 벌어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종종 '아는 것'으로 표현합니다(호 6:6). 이 언약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15절)'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불러서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있도록 불러주십니다(16절). 그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을 대하는 자리에서 누구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생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샅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는 목자로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목자로 살게 하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1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11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성전과 관련된 절기 중의 하나인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명절로 많은 인파가 모였고, 겨울이라 사람들이 성전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달라고 요구합니다(24절). 여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등 많은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의문과 불만만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뗐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가려졌습니다. 영적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24절)'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을 선동죄로 고소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적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은 정확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27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이기 때문에 믿음의 확실함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따르기로 선택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 기도 제목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소서.

²²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²³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²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 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²⁵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거늘 ²⁶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²⁷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²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²⁹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 록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성모독' (33절)의 죄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레 24:16)'는 말씀을 예수님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38절). 자신을 신성모독이라고 모욕하고, 심지어 율법을 편협하게 적용하여 돌로 치려고 덤비는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42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된 그의 부르심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³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³¹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³²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³³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한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³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³⁵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³⁶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

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³⁷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³⁸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³⁹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⁴⁰ 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⁴¹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⁴²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한 가족에게 닥친 죽음의 고통은 재앙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4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선포될 것임을 예시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베다니에 가는 것을 지체 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가정의 슬픔과 고통을 아셨지만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난 후 하나님의 정확한 일정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8절)’라고 반문합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나사로의 가족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그의 영광을 위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정점을 이루는 이적으로 극대화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큰 표적이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움을 청해도 속히 답을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던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답을 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를 살리는 영광입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십시오.

>>> 기도 제목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뿐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소서.

¹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²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³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사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⁴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⁵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⁶나사로는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⁷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

시 가자 하시니 ⁸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⁹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¹⁰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¹¹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¹²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17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려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 마르다가 한 그 첫 마디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21절). 예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아직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그가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23절).' 그들은 곧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신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25~26절)'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자기선언문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말씀을 종합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해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더욱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소망의 삶을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¹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¹⁵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¹⁶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¹⁷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¹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¹⁹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²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²¹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²²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

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²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²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²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²⁶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²⁷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²⁸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²⁹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³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읊니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갈 때 따라 나와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비통함을 느끼며(38절)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돌이 옮겨졌습니다. 돌이 옮겨진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 큰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둘러진 사망의 베와 수건도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대신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도 나사로처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비참함 가운데 성도는 자신이 비통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42절). 지금 내 모습이 처참하고 지독한 인생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주저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비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³¹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곱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³²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³³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³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³⁵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³⁶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³⁷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³⁸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³⁹ 예수

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⁴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⁴¹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⁴²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⁴³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⁴⁴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현장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45절). 그리고 그 반대의 반응 역시 극도로 더 격렬해지고 커져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46절). 그 결과를 성경은 담담히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었습니다(53절).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리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는(48절) 논리로 부활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이 왜곡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빼앗길지도 모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합니다. 가이바가 말한 의도는 예수님을 완전히 멸해야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 말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유대민족이 살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바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실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52절).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시간은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가고 싶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악이 비록 판을 치며 위세를 떨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명하게 나타내시며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⁴⁶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⁴⁸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⁴⁷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⁴⁸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⁴⁹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이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⁵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⁵¹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⁵²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⁵³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⁵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⁵⁵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⁵⁶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⁵⁷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 하였음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진 유월절 엿새 전의 베다니의 광경은 흥겨움이 가득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마리아가 보인 행동은 상당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3절).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중요한 손님의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그 향유에 대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3절)'이라 설명합니다. 그녀가 사용한 향유는 왕에게 기름부을 때 사용되는 나드였고, 한두 방울로도 향기를 낼 수 있는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있던 가롯 유다는 그 향유의 가치를 언급하며 이것이 낭비되고 있음을 직시합니다. 삼백 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일반 노동자 삼백일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볼 때 마리아가 보인 행동은 경제적인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6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마리아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가식도 없이 순수하게 그녀의 전부를 드리고자하는 그녀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순수한 신앙고백을 받으셨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행동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으로 간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웃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해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을 더 귀히 여긴다면 주님이 친히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 기도 제목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신앙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²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³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⁵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⁶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유대인들이 듣게 된 가장 놀라운 소식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고자 베다니에 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명한 대비가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10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잔치분위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자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13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증언은 더 멀리 퍼져갑니다(17절). 이렇게 민심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탄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커질수록 그들의 세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어린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14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기몰이식 왕이 아니셨습니다. 강력한 정복자의 위력으로 오시지 않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한 예수님의 왕권행사는 그의 죽음을 통해 나타날 것임이 이미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큰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소리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마 20:28).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십자가에 서있는가 점검해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세웠던 신앙을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⁹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¹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¹¹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¹²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¹³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 이시여 하더라 ¹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¹⁵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

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¹⁶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¹⁷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¹⁸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¹⁹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계속 그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그 영광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예수를 뵈기를 청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21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24절)’ 헬라인과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23절)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졌고 그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진정한 영광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25절)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절박하게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28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28절)’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를 그들을 위해 설명해줍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될 생명에 대한 초대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 영생을 얻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마 7:14). 그러나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진정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²⁶ 명절에 예배하러 올랐던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²⁷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²⁸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 ²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³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³¹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³²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³³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³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³⁵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³⁶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³⁷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³⁸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³⁹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37절). 하지만 이들이 이 같은 반응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제시합니다. 애당초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39절). 즉 37절의 “믿지 아니하니”(믿지 않았다)는 39절에 이르러서 “믿지 못한 것”(믿을 수가 없었다)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속된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 즉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의 결과, 이 같은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40절). 그들의 계속된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암흑과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메시아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는 오늘이 삶이 되게 하소서.

³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³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니라 ³⁶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³⁷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³⁸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

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³⁹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⁴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⁴¹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⁴²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⁴³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5월 1일 월요일

John 6:1~15

- 1 Some 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at is, the Sea of Tiberias),
- 2 and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miraculous signs he had performed on the sick.
- 3 Then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disciples.
- 4 The Jewish Passover Feast was near.
- 5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 6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 7 Philip answered him, "Eight months' wages would not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 8 Another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poke up,
- 9 "Here is a boy with five small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 10 Jesus said, "Have the people sit down." There was plenty of grass in that place, and the men sat down, about five thousand of them.
- 11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He did the same with the fish.
- 12 When they had all had enough to eat,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Let nothing be wasted."
- 13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five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 14 After the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 that Jesus did,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 15 Jesus,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and make him king by force, withdrew again to a mountain by himself.

5월 2일 화요일

John 6:16~27

- 16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lake,
- 17 where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ff across the lake for Capernaum. By now it was dark, and Jesus had not yet joined them.
- 18 A strong wind was blowing and the waters grew rough.
- 19 When they had rowed three or three and a half miles, they saw Jesus approaching the boat, walking on the water; and they were terrified.
- 20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n't be afraid."
- 21 Then they were willing to take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the boat reached the shore where they were heading.
- 22 The next day the crowd that had stayed on the opposite shore of the lake realized that only one boat had been there, and that Jesus had not entered it with his disciples, but that they had gone away alone.
- 23 Then some boats from Tiberias landed near the place where the people had eaten the bread after the Lord had given thanks.
- 24 Once the crowd realized that neither Jesus nor his disciples were there, they got into the boats and went to Capernaum in search of Jesus.
- 25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lake, they asked him, "Rabbi, when did you get here?"
- 26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miraculous signs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 27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5월 3일 수요일

John 6:28~40

- 28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 29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 30 So they asked him, "What miraculous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 31 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 32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 33 For the bread of God is he who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 34 "Sir," they said, "from now on give us this bread."
- 35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 36 But as I told you, you have seen me and still you do not believe.
- 37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whoever comes to me I will never drive away.
- 38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will but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 39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 40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5월 4일 목요일

John 6:41~51

- 41 At this the Jews began to grumble about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 42 They said, "Is this not Jesus, the son of Joseph, whose father and mother we know? How can he now say, 'I came down from heaven?'"
- 43 "Stop grumbling among yourselves," Jesus answered.
- 44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 45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Everyone who listens to the Father and learns from him comes to me.

46 No one has seen the Father except the one who is from God; only he has seen the Father.

47 I tell you the truth, he who believes has everlasting life.

48 I am the bread of life.

49 Y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yet they died.

50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 man may eat and not die.

51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5월 5일 금요일

John 6:52~59

52 Then the Jews began to argue sharply among themselves,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53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54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55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56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57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58 This is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Your forefathers ate manna and died, but he who feeds on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59 He said this while teaching in the synagogue in Capernaum.

5월 6일 토요일

John 6:60~71

60 On hearing it, many of his disciples said,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61 Aware that his disciples were grumbling about this, Jesus said to them, "Does this offend you?"

62 What if you see the Son of Man ascend to where he was before!

63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64 Yet there are some of you who do not believe." For Jesus had known from the beginning which of them did not believe and who would betray him.

65 He went on to say, "This is why I told you that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has enabled him."

66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67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Jesus asked the Twelve.

68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69 We believe and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70 Then Jesus replied, "Have I not chosen you, the Twelve? Yet one of you is a devil!"

71 (He meant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who, though one of the Twelve, was later to betray him.)

5월 7일 주일

John 7:1~13

1 After this, Jesus went around in Galilee, purposely staying away from Judea because the Jews there were waiting to take his life.

2 But when the Jewish Feast of Tabernacles was near,

3 Jesus' brothers said to him, "You ought to leave here and go to Judea, so that your disciples may see the miracles you do.

4 No one who wants to become a public figure acts in secret. Since you are doing these things, show yourself to the world."

5 For even his own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6 Therefore Jesus told them, "The right time for me has not yet come; for you any time is right.

7 The world cannot hate you, but it hates me because I testify that what it does is evil.

8 You go to the Feast. I am not yet going up to this Feast, because for me the right time has not yet come."

9 Having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10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ast,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11 Now at the Feast the Jews were watching for him and asking, "Where is that man?"

12 Among the crowds there was widespread whispering about him. Some said, "He is a good man." Others replied, "No, he deceives the people."

13 But no one would say anything publicly about him for fear of the Jews.

5월 8일 월요일

John 7:14~24

14 Not until halfway through the Feast did Jesus go up to the temple courts and begin to teach.

15 The Jews were amazed and asked,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d?"

16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17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18 He who speaks on his own does so to gain honor for himself, but he who works for the honor of the one who sent him is a man of truth; there is nothing false about him.

19 Has not Moses given you the law? Yet not one of you keeps the law. Why are you trying to kill me?"

20 "You are demon-possessed," the crowd answered. "Who is trying to kill you?"

21 Jesus said to them, "I did one miracle, and you are all astonished.

22 Yet, because Moses gave you circumcision (though actually it did not come from Moses, but from the patriarchs), you circumcise a child on the Sabbath.

23 Now if a child can be circumcised on the Sabbath so that the law of Moses may not be broken, why are you angry with me for healing the whole man on the Sabbath?

24 Stop judging by mere appearances, and make a right judgment."

5월 9일 화요일

John 7:25~36

- 25 At that point some of the people of Jerusalem began to ask, "Isn't this the man they are trying to kill?"
- 26 Here he is, speaking publicly, and they are not saying a word to him. Have the authorities really concluded that he is the Christ?
- 27 But we know where this man is from; when the Christ comes, no one will know where he is from."
- 28 Then Jesus, still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cried out, "Yes, you know me, and you know where I am from. I am not here on my own, but he who sent me is true. You do not know him,
- 29 but I know him because I am from him and he sent me."
- 30 At this they tried to seize him, but no one laid a hand on him, because his time had not yet come.
- 31 Still, many in the crowd put their faith in him. They said, "When the Christ comes, will he do more miraculous signs than this man?"
- 32 The Pharisees heard the crowd whispering such things about him.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sent temple guards to arrest him.
- 33 Jesus said, "I am with you for only a short time, and then I go to the one who sent me.
- 34 You will look for me, but you will not find me; and where I am, you cannot come."
- 35 The Jews said to one another, "Where does this man intend to go that we cannot find him? Will he go where our people live scattered among the Greeks, and teach the Greeks?"
- 36 What did he mean when he said, 'You will look for me, but you will not find me,' and 'Where I am, you cannot come'?"

5월 10일 수요일

John 7:37~53

- 37 On the last and greatest day of the Feast,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 38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 39 By this he meant the Spirit, whom those who believed in him were later to receive. Up to that time the Spirit had not been given, since Jesus had not yet been glorified.
- 40 On hearing his words, some of the people said, "Surely this man is the Prophet."
- 41 Others said, "He is the Christ." Still others asked,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 42 Does not the Scripture say that the Christ will come from David's family and from Bethlehem, the town where David lived?"
- 43 Thus the people were divided because of Jesus.
- 44 Some wanted to seize him, but no one laid a hand on him.
- 45 Finally the temple guards went back to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who asked them, "Why didn't you bring him in?"
- 46 "No one ever spoke the way this man does," the guards declared.
- 47 "You mean he has deceived you also?" the Pharisees retorted.
- 48 "Has any of the rulers or of the Pharisees believed in him?"
- 49 No! But this mob that knows nothing of the law--there is a curse on them."
- 50 Nicodemus, who had gone to Jesus earlier and who was one of their own number, asked,
- 51 "Does our law condemn anyone without first hearing him to find out what he is doing?"
- 52 They replied, "Are you from Galilee, too? Look into it, and you will find that a prophet does not come out of Galilee."
- 53 Then each went to his own home.

5월 11일 목요일

John 8:1~11

- 1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 2 At dawn he appeared again in the temple courts, where all the people gathered around him, and he sat down to teach them.
- 3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brought in a woman caught in adultery. They made her stand before the group
- 4 and said to Jesus,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 5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Now what do you say?"
- 6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in order to have a basis for accusing him. But Jesus bent down and started to wri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 7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 8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 9 At this, those who heard began to go away one at a time, the older ones first, until only Jesus was left, with the woman still standing there.
- 10 Jesus straightened up and asked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 11 "No one, sir," she said. "Then neither do I condemn you," Jesus declared. "Go now and leave your life of sin."

5월 12일 금요일

John 8:12~20

- 12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 13 The Pharisees challenged him, "Here you are, appearing as your own witness; your testimony is not valid."
- 14 Jesus answered, "Even if I testify on my own behalf, my testimony is valid, for I know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 am going. But you have no idea where I come from or where I am going.

15 You judge by human standards; I pass judgment on no one.

16 But if I do judge, my decisions are right, because I am not alone. I stand with the Father, who sent me.

17 In your own Law it is written that the testimony of two men is valid.

18 I am one who testifies for myself; my other witness is the Father, who sent me."

19 Then they asked him, "Where is your father?" "You do not know me or my Father," Jesus replied. "If you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lso."

20 He spoke these words while teaching in the temple area near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Yet no one seized him, because his time had not yet come.

5월 13일 토요일

John 8:21~30

21 Once more Jesus said to them, "I am going away, and you will look for me, and you will die in your sin. Where I go, you cannot come."

22 This made the Jews ask, "Will he kill himself? Is that why he says, 'Where I go, you cannot come?'"

23 But he continued, "You are from below; I am from above. You are of this world; I am not of this world.

24 I told you that you would die in your sins;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the one I claim to be, you will indeed die in your sins."

25 "Who are you?" they asked. "Just what I have been claiming all along," Jesus replied.

26 "I have much to say in judgment of you. But he who sent me is reliable, and what I have heard from him I tell the world."

27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he was telling them about his Father.

28 So Jesus said,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one I claim to be and that I do nothing on my own but speak just what the Father has taught me.

29 The one who sent me is with me; he has not left me alone, for I always do what pleases him."

30 Even as he spoke, many put their faith in him.

5월 14일 주일

John 8:31~44

- 31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32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33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34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35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a son belongs to it forever.
36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37 I know you are Abraham's descendants. Yet you are ready to kill me, because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38 I am telling you what I have seen in the Father's presence, and you do what you have heard from your father."
39 "Abraham is our father," they answered. "If you were Abraham's children," said Jesus, "then you would do the things Abraham did.
40 As it is, you are determined to kill me, a man who has told you the truth that I heard from God. Abraham did not do such things.
41 You are doing the things your own father does." "We are not illegitimate children," they protested. "The only Father we have is God himself."
42 Jesus said to them,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love me, for I came from God and now am here. I have not come on my own; but he sent me.
43 Why is my language not clear to you? Because you are unable to hear what I say.
44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not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5월 15일 월요일

John 8:45~59

- 45 Yet because I tell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me!
46 Can any of you prove me guilty of sin? If I am telling the truth, why don't you believe me?
47 He who belongs to God hears what God says. The reason you do not hear is that you do not belong to God."
48 The Jews answered him, "Aren't we right in saying that you are a Samaritan and demon-possessed?"
49 "I am not possessed by a demon," said Jesus, "but I honor my Father and you dishonor me.
50 I am not seeking glory for myself; but there is one who seeks it, and he is the judge.
51 I tell you the truth, if anyone keeps my word, he will never see death."
52 At this the Jews exclaimed, "Now we know that you are demon-possessed! Abraham died and so did the prophets, yet you say that if anyone keeps your word, he will never taste death.
53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Abraham? He died, and so did the prophets. Who do you think you are?"
54 Jesus replied, "If I glorify myself, my glory means nothing. My Father, whom you claim as your God, is the one who glorifies me.
55 Though you do not know him, I know him. If I said I did not, I would be a liar like you, but I do know him and keep his word.
56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eeing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57 "You are not yet fifty years old," the Jews said to him, "and you have seen Abraham!"
58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59 At this, they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but Jesus hid himself, slipping away from the temple grounds.

5월 16일 화요일

John 9:1~12

- 1 As he went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 2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 3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 4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 5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 6 Having said this, he spit on the ground, made some mud with the saliva, and put it on the man's eyes.
- 7 "Go," he told him, "wash in the Pool of Siloam" (this word means Sent). So the man went and washed, and came home seeing.
- 8 His neighbors and those who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asked, "Isn't thi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 9 Some claimed that he was. Others said, "No, he only looks like him." But he himself insisted, "I am the man."
- 10 "How then were your eyes opened?" they demanded.
- 11 He replied, "The man they call Jesus made some mud and put it on my eyes. He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h. So I went and washed, and then I could see."
- 12 "Where is this man?" they asked him. "I don't know," he said.

5월 17일 수요일

John 9:13~23

- 13 They brought to the Pharisees the man who had been blind.
- 14 Now the day on which Jesus had made the mud and opened the man's eyes was a Sabbath.
- 15 Therefore the Pharisees also asked him how he had received his sight. "He put mud on my eyes," the man replied, "and I washed, and now I see."
- 16 Some of the Pharisees said, "This man is

not from God, for he does not keep the Sabbath." But others asked, "How can a sinner do such miraculous signs?" So they were divided.

- 17 Finally they turned again to the blind man, "What have you to say about him? It was your eyes he opened." The man replied, "He is a prophet."
- 18 The Jews still did not believe that he had been blind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 19 "Is this your son?" they asked. "Is this the one you say was born blind? How is it that now he can see?"
- 20 "We know he is our son," the parents answered, "and we know he was born blind.
- 21 But how he can see now, or who opened his eyes, we don't know. Ask him. He is of age; he will speak for himself."
- 22 His parents said thi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for already the Jews had decided that anyone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Christ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 23 That was why his parents said, "He is of age; ask him."

5월 18일 목요일

John 9:24~34

- 24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 25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 26 Then they asked him, "What did he do to you? How did he open your eyes?"
- 27 He answered, "I have told you already and you did not listen. Why do you want to hear it again? Do you want to become his disciples, too?"
- 28 Then they hurled insults at him and said, "You are this fellow's disciple! We are disciples of Moses!"
- 29 We know that God spoke to Moses, but as for this fellow, we don't even know where he comes from."
- 30 The man answered, "Now that is remarkable! You don't know where he

comes from, yet he opened my eyes.

- 31 We know that God does not listen to sinners. He listens to the godly man who does his will.
32 Nobody has ever heard of opening the eyes of a man born blind.
33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34 To this they replied, "You were steeped in sin at birth; how dare you lecture us!" And they threw him out.

5월 19일 금요일

John 9:35~41

- 35 Jesus heard that they had thrown him out, and when he found him, he said,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36 "Who is he, sir?" the man asked. "Tell me so that I may believe in him."
37 Jesus said, "You have now seen him; in fact, he is the one speaking with you."
38 Then the man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ed him.
39 Jesus said,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see will become blind."
40 Some Pharisees who were with him heard him say this and asked, "What? Are we blind too?"
41 Jesus said, "If you were blind, you would not be guilty of sin; but now that you claim you can see, your guilt remains.

5월 20일 토요일

John 10:1~10

- 1 "I tell you the truth, the man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by the gate, but climbs in by some other way, is a thief and a robber.
2 The man who enters by the gate is the shepherd of his sheep.
3 The watchman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4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he goes on ahead of them,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5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a stranger's voice."

- 6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telling them.
7 Therefore Jesus said again, "I tell you the truth, I am the gate for the sheep.
8 All who ever came before me we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listen to them.
9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He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10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5월 21일 주일

John 10:11~21

- 11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12 The hired hand is not the shepherd who owns the sheep. So when he sees the wolf coming, he abandons the sheep and runs away. Then the wolf attacks the flock and scatters it.
13 The man runs away because he is a hired hand and cares nothing for the sheep.
14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15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16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sheep pen. I must bring them also. They too will listen to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lock and one shepherd.
17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is that I lay down my life--only to take it up again.
18 No one takes it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 own accord.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authority to take it up again. This command I received from my Father."
19 At these words the Jews were again divided.
20 Many of them said, "He is demon-possessed and raving mad. Why listen to him?"
21 But others said, "These are not the sayings of a man possessed by a demon. Can a demon open the eyes of the blind?"

5월 22일 월요일

John 10:22~29

- 22 Then came the Feast of Dedication at Jerusalem. It was winter,
23 and Jesus was in the temple area walking in Solomon's Colonnade.
24 The Jews gathered around him, saying,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25 Jesus answered, "I did tell you, but you do not believe. The miracles I do in my Father's name speak for me,
26 but you do not believe because you are not my sheep.
27 My sheep listen to my voice;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28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
29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5월 23일 화요일

John 10:30~42

- 30 I and the Father are one."
31 Again the Jews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32 but Jesus said to them, "I have shown you many great miracles from the Father. For which of these do you stone me?"
33 "We are not stoning you for any of these," replied the Jews, "but for blasphemy, because you, a mere man, claim to be God."
34 Jesus answered them,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 have said you are gods'?
35 If he called them 'gods,' to whom the word of God came--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36 what about the one whom the Father set apart as his very own and sent into the world? Why then do you accuse me of blasphemy because I said, 'I am God's Son'?
37 Do not believe me unless I do what my Father does.
38 But if I do it, even though you do not believe me, believe the miracles, that you may know and understand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in the Father."

- 39 Again they tried to seize him, but he escaped their grasp.
40 Then Jesus went back across the Jordan to the place where John had been baptizing in the early days. Here he stayed
41 and many people came to him. They said, "Though John never performed a miraculous sign, all that John said about this man was true."
42 And in that place many believed in Jesus.

5월 24일 수요일

John 11:1~13

- 1 Now a man named Lazarus was sick. He was from Bethany, the village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2 This Mary, whose brother Lazarus now lay sick, was the same one who poured perfume on the Lord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3 So the sisters sent word to Jesus, "Lord, the one you love is sick."
4 When he heard this, Jesus said,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No, it is for God's glory so that God's Son may be glorified through it."
5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6 Yet when he heard that Lazarus was sick, he stayed where he was two more days.
7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back to Judea."
8 "But Rabbi," they said, "a short while ago the Jews tried to stone you, and yet you are going back there?"
9 Jesus answered, "Are there not twelve hours of daylight? A man who walks by day will not stumble, for he sees by this world's light.
10 It is when he walks by night that he stumbles, for he has no light."
11 After he had said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but I am going there to wake him up."
12 His disciples replied, "Lord, if he sleeps, he will get better."
13 Jesus had been speaking of his death, but his disciples thought he meant natural sleep.

5월 25일 목요일

John 11:14~30

- 14 So then he told them plainly, "Lazarus is dead,
15 and for your sake I am glad I was not there, so that you may believe. But let us go to him."
16 Then Thomas (called Didymus) said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17 On his arrival, Jesus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four days.
18 Bethany was less than two miles from Jerusalem,
19 and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20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21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22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23 Jesus said 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24 Martha answered,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25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26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27 "Yes, Lord," she told him,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was to come into the world."
28 And after she had said this, she went back and called her sister Mary aside. "The Teacher is here," she said, "and is asking for you."
29 When Mary heard this, she got up quickly and went to him.
30 Now Jesus had not yet entered the village, but was still at the place where Martha had met him.

5월 26일 금요일

John 11:31~44

- 31 When the Jews who had been with Mary in the house, comforting her, noticed how quickly she got up and went out, they followed her, supposing she was going to the tomb to mourn there.
32 When Mary reached the place where Jesus was and saw him, she fell at his feet and said,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33 When Jesus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who had come along with her also weeping,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34 "Where have you laid him?" he asked.
35 "Come and see, Lord," they replied.
36 Jesus wept.
37 Then the Jews said, "See how he loved him!"
38 But some of them said, "Could not he who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man have kept this man from dying?"
39 Jesus, once more deeply moved, came to the tomb. It was a cave with a stone laid across the entrance.
40 "Take away the stone," he said. "But, Lord," said Martha, the sister of the dead man, "by this time there is a bad odor, for he has been there four days."
41 Then Jesus said, "Did I not tell you that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42 So they took away the stone. Then Jesus looked up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43 I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I said thi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standing here,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44 When he had said this, Jesus called in a loud voice, "Lazarus, come out!"
45 The dead man came out, his hands and feet wrapped with strips of linen, and a cloth around his face. Jesus said to them, "Take off the grave clothes and let him go."

5월 27일 토요일

John 11:45~57

- 45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put their faith in him.
- 46 But some of them went to the Pharisees and told them what Jesus had done.
- 47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called a meeting of the Sanhedrin. "What are we accomplishing?" they asked. "Here is this man performing many miraculous signs.
- 48 If we let him go on like this, everyone will believe in him, and then the Romans will come and take away both our place and our nation."
- 49 Then one of them, named Caiaphas, who was high priest that year, spoke up, "You know nothing at all!
- 50 You do not realize that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than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 51 He did not say this on his own, but as high priest that year he prophesied that Jesus would die for the Jewish nation,
- 52 and not only for that nation but also for the scattered children of God, to bring them together and make them one.
- 53 So from that day on they plotted to take his life.
- 54 Therefore Jesus no longer moved about publicly among the Jews. Instead he withdrew to a region near the desert, to a village called Ephraim, where he stayed with his disciples.
- 55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many went up from the country to Jerusalem for their ceremonial cleansing before the Passover.
- 56 They kept looking for Jesus, and as they stood in the temple area they asked one another, "What do you think? Isn't he coming to the Feast at all?"
- 57 But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had given orders that if anyone found out where Jesus was, he should report it so that they might arrest him.

5월 28일 주일

John 12:1~8

- 1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arrived at Bethany, where Lazarus lived,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 2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Martha served, while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 3 Then Mary took about a pint of pure nard, an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 4 But one of his disciples, Judas Iscariot, who was later to betray him, objected,
- 5 "Why wasn't this perfume sold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It was worth a year's wages."
- 6 He did not say this because he cared about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as keeper of the money bag, he used to help himself to what was put into it.
- 7 "Leave her alone," Jesus replied.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 8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among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5월 29일 월요일

John 12:9~19

- 9 Meanwhile a large crowd of Jews found out that Jesus was there and came, not only because of him but also to see Lazarus,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 10 So the chief priests made plans to kill Lazarus as well,
- 11 for on account of him many of the Jews were going over to Jesus and putting their faith in him.
- 12 The next day the great crowd that had come for the Feast heard that Jesus was on his way to Jerusalem.
- 13 They took palm branches and went out to meet him,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 14 Jesus found a young donkey and sat upon it, as it is written,

15 "Do not be afraid, O Daughter of Zion; see, your king is coming, seated on a donkey's colt."

16 At first his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ll this. Only after Jesus was glorified did they realize that these things had been written about him and that they had done these things to him.

17 Now the crowd that was with him when he called Lazarus from the tomb and raised him from the dead continued to spread the word.

18 Many people, because they had heard that he had given this miraculous sign, went out to meet him.

19 So the Pharisees said to one another, "See, this is getting us nowhere. Look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5월 30일 화요일

John 12:20~33

20 Now there were some Greeks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at the Feast.

21 They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with a request. "Sir," they said, "we would like to see Jesus."

22 Philip went to tell Andrew; Andrew and Philip in turn told Jesus.

23 Jesus replie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24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25 The man who loves his life will lose it, while the man who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26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 also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27 "Now my heart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No, it was for this very reason I came to this hour.

28 Father, glorify your name!" Then a voice came from heaven, "I have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29 The crowd that was there and heard it said it had thundered; others said an angel had spoken to him.

30 Jesus said, "This voice was for your benefit, not mine.

31 Now is the time for judgment on this world; now the prince of this world will be driven out.

32 But I, when I am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to myself."

33 He said this to show the kind of death he was going to die.

5월 31일 수요일

John 12:34~43

34 The crowd spoke up, "We have heard from the Law that the Christ will remain forever, so how can you say,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Who is this 'Son of Man'?"

35 Then Jesus told them, "You are going to have the light just a little while longer. Walk while you have the light, before darkness overtakes you. The man who walks in the dark does not know where he is going.

36 Put your trust in the light while you have it, so that you may become sons of light."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Jesus left and hid himself from them.

37 Even after Jesus had done all these miraculous signs in their presence, they still would not believe in him.

38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e prophet: "Lord,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39 For this reason they could not believe, because, as Isaiah says elsewhere:

40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deadened their hearts, so they can neither see with their eyes, nor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nor turn--and I would heal them."

41 Isaiah said this because he saw Jesus' glory and spoke about him.

42 Yet at the same time many even among the leaders believed in him. But because of the Pharisees they would not confess their faith for fear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43 for they loved praise from men more than praise from God.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4

충현의 만나 2017년 5월

Copyright ©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한규삼 · 편집인 | 권명옥 · 집필진 | 김주한 김용은 허예스더 김완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 [비매품]